

# 현안과 과제

■ 최근 수출 환경 점검과 시사점  
- 하반기 수출 구름지형 회복 가능

# 목 차

---

- 최근 수출 환경 점검과 시사점
- 하반기 수출 구름지형 회복 가능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최근 수출 환경 점검 .....	2
3. 정리 및 시사점 .....	9

## Executive Summary

### < 요약 >

#### ■ 개요

세계 수출 시장의 하락세가 완화되어 가고 있으며, 한국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국들도 수출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2016년 6월 수출 증감률이 -2.7%로 12개월 만에 최소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2분기 들어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수출 시장 전반에서 2015년부터 지속된 하락세가 최근 완화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출의 회복 속도가 앞으로도 견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 ■ 최근 수출 환경 점검

**한국의 수출 환경을 크게 세계 수출 환경과 주요 수출 지역별 환경으로 구분해보았다.**

**(세계 수출 환경)** ① (세계 수입 수요) 선진국의 수입 수요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신흥국의 수입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다. 추세선을 통해 세계 수입물량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수입 수요는 일정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흥국은 2015년 이후 수입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IMF, OECD 등 국제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2015년과 같은 수준이어서 현재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② (세계 생산 및 수출 물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신흥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세계 전반적인 생산 활력이 저하되고 수출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추세선을 통해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다. 수출 물량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신흥국의 증가율이 더 빠르게 하락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수출 물량 증가율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③ (유가 및 수출물가)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멈추고 배럴당 4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세계 수출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국제 유가가 평균 40~50달러 선을 회복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수출물가 역시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④ (환율) 엔고 현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은 수출 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엔 환율이 2016년 6월 평균 1,107원까지 상승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 원/엔 실질실효환율은 2016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2.2% 하락하면서 우리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원화의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국내 수출 회복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수출 환경) ① (미국)** 미국은 최근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對미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된 가운데, 원/달러 실질실효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의 對미국수출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6년 들어 미국의 소매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② (중국)** 중국의 산업 생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의 對중국 수출을 제약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의 성장 속도는 하락세가 멈추며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원/위안 실질실효환율은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연초 급락세에서 벗어났지만, 중국의 산업생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對중국 수출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③ (유럽)** 유로존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對EU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유로존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원/유로 실질실효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對EU수출은 2016년 2분기 유로존의 소매판매 둔화세와 함께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하반기에도 브렉시트 여파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등에 따라 부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하반기 수출은 유가 상승과 미국의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아 계곡형(V)의 탄력적 성장보다는 구릉지형(∩)의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의 수출 회복은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회복이 주요인이며, 수출 물량은 신흥국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명확한 개선세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엔고 현상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국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 하반기 리스크 요인은 수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 시사점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존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외형적 성장에 집중하기 보다는 부가가치 창출, 생산성 향상, 신성장산업 육성 등 수출 잠재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수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 시장에 대해 정밀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적 공략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 시장에서는 소비재 시장 확대에 대응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사드 배치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유럽 시장에서는 영국과의 빠른 무역 협정 체결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들의 탈영국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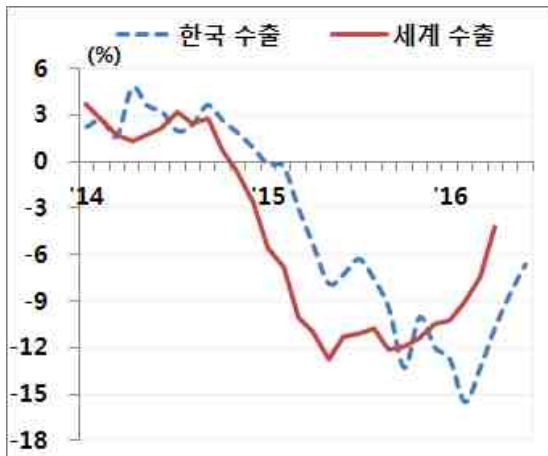
## 1. 개요

○ (현황) 세계 수출 시장의 하락세가 완화되어 가고 있으며, 한국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국들도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

- (한국) 2016년 6월 수출 증감률이 -2.7%로 12개월 만에 최소 감소율 기록
  - 한국 수출은 2016년 1월 -19.1%, 2월 -13.0%, 3월 -8.1%, 4월 -11.1%, 5월 -5.9%, 6월 -2.7%로 2015년 6월 -2.7% 이후 12개월 만에 최소 감소율 기록
  - 수출이 연초 급감세를 보인 이후 2분기 들어 감소율이 회복되는 모습
- (세계 및 주요 수출국) 주요 수출국을 비롯해 세계 수출시장 전반에서 2015년부터 지속된 수출 하락세가 완화되어 가는 모습
  - WTO가 집계한 세계 수출은 2016년 1월 -11.7%에서 2월 -7.1%, 3월 -3.6%, 4월 -2.1%, 5월 -2.6%로 감소세가 완화되는 모습
  - 2015년 5월 주요국 수출은 중국 -6.0%, 미국 -4.1%, 독일 -6.6%, 일본 3.1%로 연초 대비 감소율이 둔화
  - 3개월 이동평균을 통해 수출 추세를 살펴본 결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 모두 2016년 연초 대비 수출 감소율이 회복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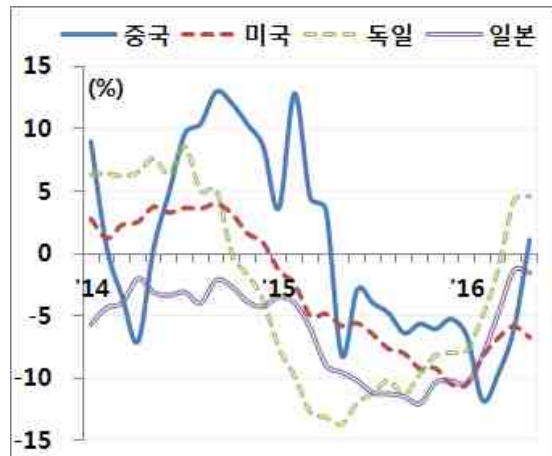
○ (연구 배경) 최근 수출의 회복 속도가 앞으로도 견고할 수 있는지, 일시적 반등인지 진단해 볼 필요

< 한국 및 세계 수출 증감률(YoY%)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WTO 이용).  
 주 1)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월비 기준.  
 2) 달러 기준.

< 주요국 수출 증감률(YoY%)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WTO 이용).  
 주 1)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월비 기준.  
 2) 달러 기준.

## 2. 최근 수출 환경 점검

### 1) 세계 수출 환경

○ (세계 수입 수요) 선진국의 수입 수요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신흥국의 수입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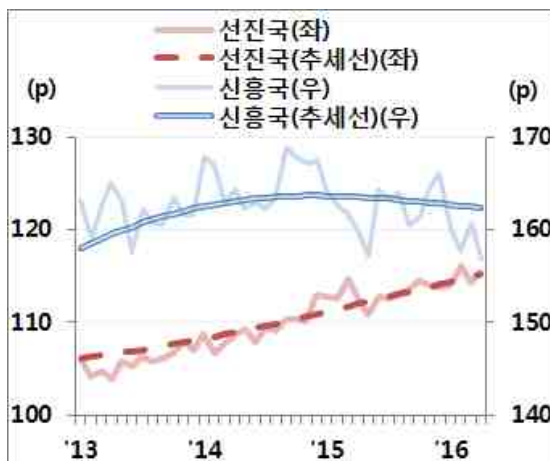
- 선진국의 수입 수요는 일정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흥국은 2015년 이후 수입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추세를 통해 세계 수입물량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세계 전반적인 수입 물량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 그러나, 선진국의 수입 물량 증가율은 전월 대비 일정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의 수입 물량은 오히려 2015년 이후 전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

- 국제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2015년과 같은 수준이어서 현재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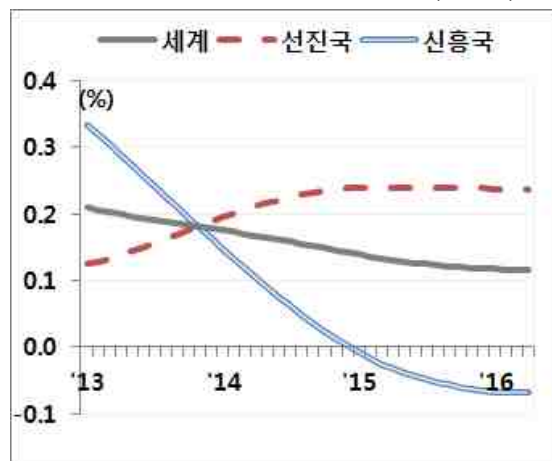
- IMF는 지난 7월 2016년 성장률을 전년과 동일한 3.1%로 전망
- OECD는 지난 6월 2016년 성장률을 전년과 동일한 3.0%로 전망

< 세계 수입물량 지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CPB 이용).  
주 : 계절조정, HP filtering 기준.

< 세계 수입물량 지수 증가율(MoM%)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CPB 이용).  
주 : 계절조정, HP filtering, 전월비 기준.

○ (세계 생산 및 수출 물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신흥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세계 전반적인 생산 활력이 저하되고 수출 물량 감소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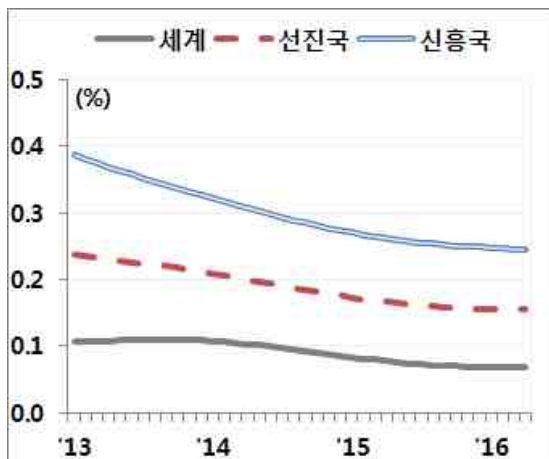
- 세계 산업 생산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

- 신흥국의 전월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3년 초반 0.39% 수준에서 2016년 약 0.25%로 둔화
- 선진국의 전월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3년 초반 0.11% 수준에서 2016년 약 0.07%로 둔화
-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세계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 세계 수출 물량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며 정체된 가운데, 신흥국의 둔화세가 더 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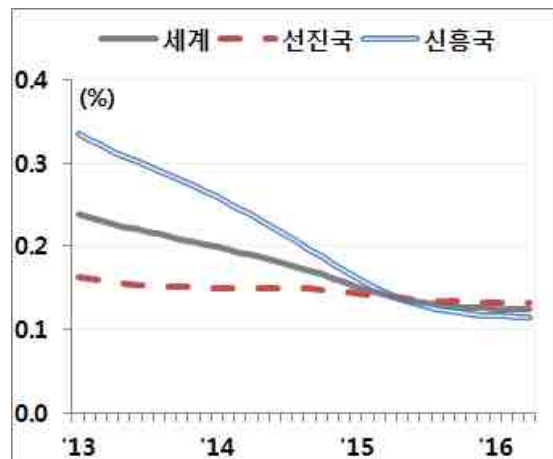
- 신흥국의 전월대비 세계 수출물량 증가율은 2013년 1월 기준 약 0.33%로 신흥국 0.16%의 약 두 배 수준이었음
- 그러나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수출 물량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신흥국이 더 빠르게 하락되면서 2016년에는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수출 물량 증가세가 유사한 수준에서 정체

< 세계 산업 생산 증가율(MoM%)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CPB 이용).  
주 : 계절조정, HP filtering, 전월비 기준.

< 세계 수출 물량 증가율(Mo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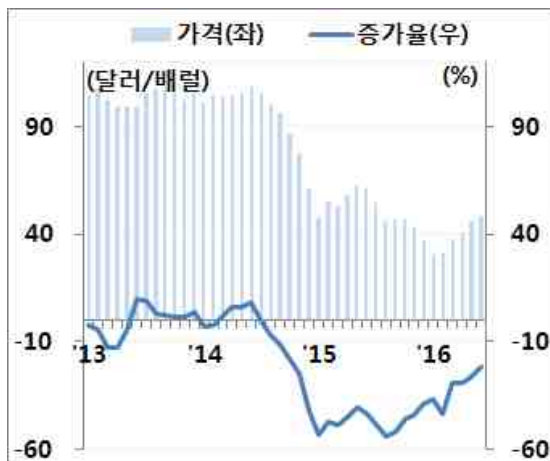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CPB 이용).  
주 : 계절조정, HP filtering, 전월비 기준.



○ (유가 및 수출물가)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멈추고 배럴당 40달러선을 회복하면서 세계 수출물가도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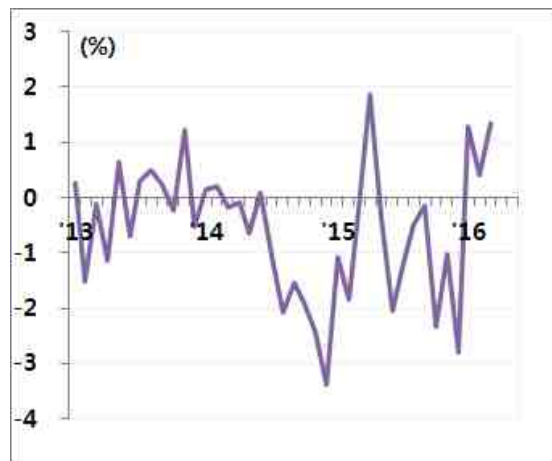
- 2016년 6월 현재 국제 유가가 평균 40~50달러 선을 회복
  - 국제 유가(3개유종 평균)는 2016년 1월 평균 30.2달러까지 하락한 후 상승하는 모습
  - 2016년 6월 3개유종 평균 국제유가는 48.4달러까지 상승하며 50달러 선에 근접
  
- 원자재가격 역시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6년 상승세로 반전
  - CRB지수는 2013년 280.2p, 2014년 230.0p, 2015년 176.1p로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임
  - 그러나 2016년 6월 CRB지수는 192.6p로 상승세로 반전한 모습
  
- 2016년 들어 세계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2016년 1월 -2.8%, 2월 1.3%, 3월 0.4%, 4월 1.3%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 3개월 이동평균으로 나타난 추세 역시 2016년 2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

< 국제유가 추이 >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 3개 유종 평균, 전년동월비 기준.

< 세계 수출 물가 증가율(MoM%) >



자료 : CPB.  
주 : 계절조정, 전월비 기준.



○ (환율) 엔고 현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은 수출 회복을 제약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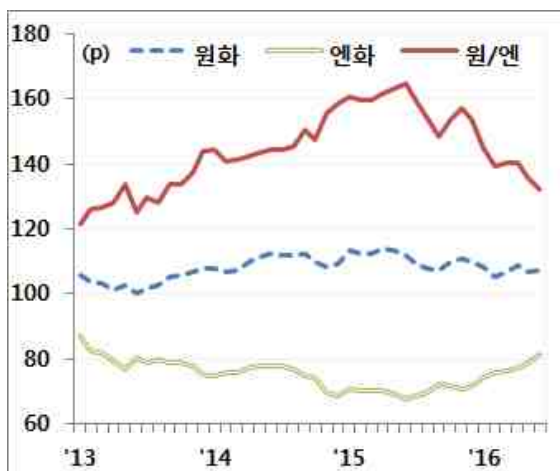
- 엔고 현상으로 원/엔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엔화 대비 원화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는 상황

- 2013년 이후 지속되었던 엔저 현상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6년 6월 평균 1,107원까지 상승
- 이에 따라 2016년 엔화 실질실효환율은 상승세를, 원/엔 실질실효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엔화 대비 원화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는 추세
- 2016년 상반기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전년동기대비 -3.3% 하락, 원/엔 실질실효환율은 전년동기대비 -12.2% 하락

-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원화의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국내 수출 회복에 불리

- 달러대비 원화의 환율변동성은 2015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6월 현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원화 뿐 아니라 엔, 유로 등 경쟁국 환율 변동성도 상승하는 등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전 세계 환율 변동성을 높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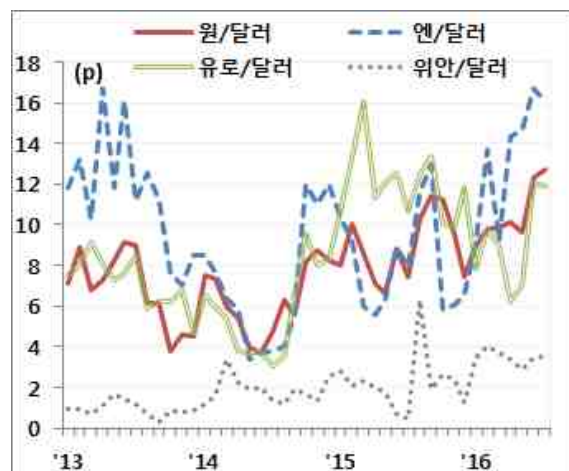
< 실질실효환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BIS 자료 이용).

- 1) 원/엔 실질실효환율 = (원화 실질실효환율/엔화 실질실효환율)\*100.
- 2) 수치가 상승할수록 해당 통화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을 의미.

< 환율변동성 >



자료 : Bloomberg.

주 : 최근 30 거래일 증가 변동의 표준편차.

2) 지역별 수출 환경

○ (미국) 미국은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對미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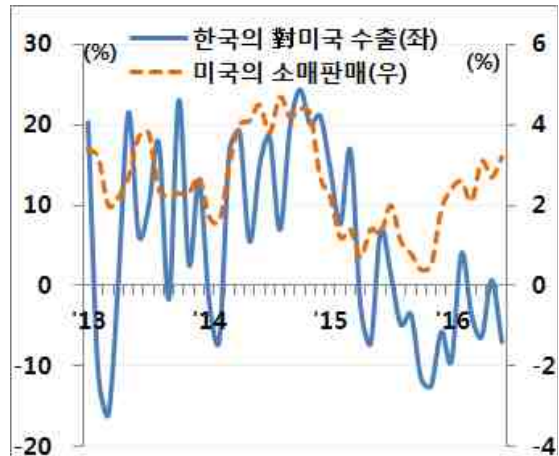
- (미국 경기 및 환율) 미국의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원/달러 실질실효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강화
  - 미국 경제성장률은 2015년 하반기 이후 3분기 연속 2% 수준에 그침
  - 원/달러 환율은 2016년 1분기 1,201원, 2분기 1,163원으로 2015년 대비 상승한 모습
  - 원/달러 실질실효환율은 2016년 1분기 93.0p, 2분기 95.5p로 2014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
- (미국의 소비와 한국의 對미국수출) 한국의 對미국수출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6년 들어 미국의 소매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對미국 수출은 2015년 10~11월 약 -12%의 감소율을 기록한 후 소폭 회복했으나, 상승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 그러나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의 소매판매지수 증가율이 2016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對미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경제성장률 및 원/달러 실질실효환율 >



자료 : Bloomberg, BIS.  
주 : 경제성장률은 전년동월비 기준.

< 미국 소매판매 및 한국의 對미국 수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Bloomberg.  
주 1) 전년동월비 기준.  
2) 미국 소매판매는 자동차 제외.

○ (중국) 중국 산업 생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의 對중국 수출을 제약할 우려

- (중국 경기 및 환율) 중국의 성장 속도는 하락세가 멈추며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원/위안 실질실효환율은 소폭 상승

-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6.7% 성장하며 2009년 1분기 6.2% 이후 7년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하락세는 멈춤
- 원/위안 환율은 2016년 1분기 183원, 2분기 177원으로 2015년 대비 상승한 모습
- 원/위안 실질실효환율은 2014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6년 1분기 82.4p, 2분기 86.3p로 2분기에 소폭 상승

- (중국의 생산과 한국의 對중국수출)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연초 급락세에서 벗어났지만,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세가 부진해 하반기 對중국 수출을 제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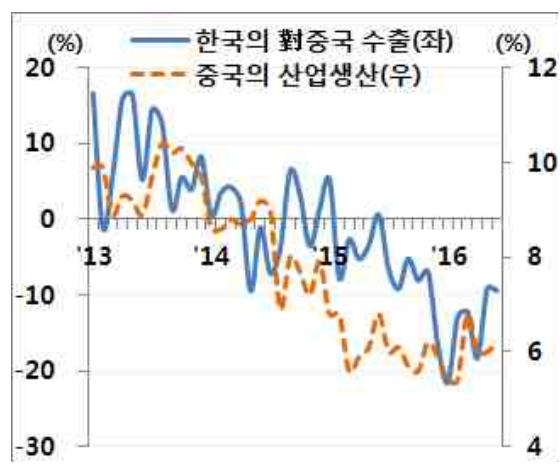
-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2016년 1월에 -21.5%까지 하락한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6월 수출이 -9.4%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감소율이 상당한 수준
- 한국의 對중국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 산업생산의 성장 둔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하반기 對중국 수출을 제약할 전망

< 중국 경제성장률 및 원/위안 실질실효환율 >



자료 : Bloomberg, BIS.  
주 : 경제성장률은 전년동월비 기준.

< 중국 산업생산 및 한국의 對중국 수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CEIC.  
주 : 전년동월비 기준.

○ (유로존) 유로존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對EU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영향

- (유로존 경기 및 환율) 유로존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원/유로 실질실효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강화

-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5년 4분기와 2016년 1분기 1.7% 증가하며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
- 원/유로 환율은 2016년 1분기 1,325원, 2분기 1,313원으로 2016년 대비 상승한 모습
- 원/유로 실질실효환율은 2016년 1분기 117.1p, 2분기 116.9p로 2015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유럽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

- (유로존의 소비와 한국의 對EU수출) 한국의 대EU수출은 유로존의 소매판매 둔화세와 함께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하반기에도 브렉시트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부진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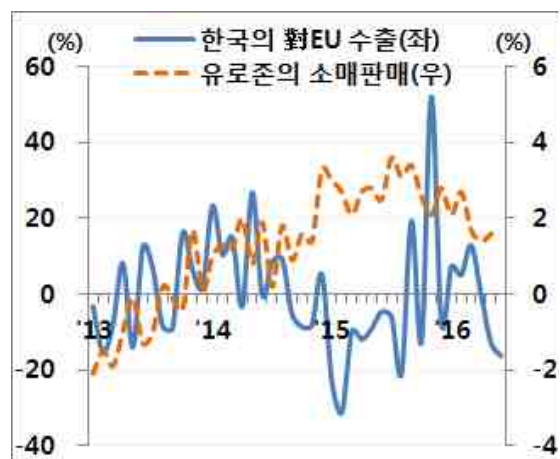
- 한국의 對EU 수출은 2016년 1~3월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6월 수출이 -16.3%를 기록
- 유로존의 소매판매가 2015년 2~3%대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2016년 2분기 1%대로 둔화되었고, 브렉시트 이슈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對EU 수출은 부진할 전망

< 유로존 경제성장률 및 원/유로 실질실효환율 >



자료 : Bloomberg, BIS.  
주 : 경제성장률은 전년동월비 기준.

< 유로존의 소매판매 및 한국의 對EU 수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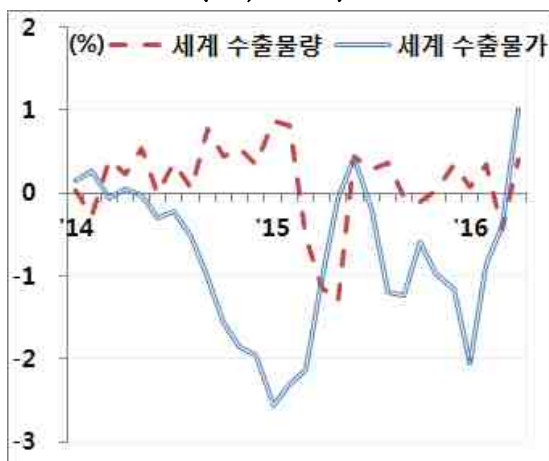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Bloomberg.  
주 : 전년동월비 기준.

### 3. 정리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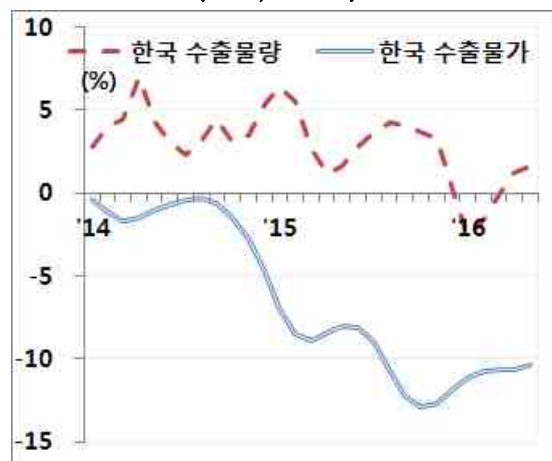
- (전망) 하반기 수출은 유가 상승과 미국의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아 계곡형(V)의 탄력적 성장보다는 구릉지형(∩)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전망이다
- 최근의 수출 회복은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회복이 주요인이며, 수출 물량은 신흥국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명확한 개선세가 포착되지 않음
- 일본의 엔고 현상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환율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우려
- 하반기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은 양호하겠지만, 중국과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유럽 은행권 불안 심화, 국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 중국과 유럽 지역에 집중된 하반기 리스크 요인은 수출 하방 압력으로 작용

<세계 수출물량 및 수출물가 추이 (SA, MoM%)>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CPB 이용).  
주 : 계절조정, 3개월 이동평균, 전월비 기준.

<한국 수출물량 및 수출물가 추이 (NSA, YoY%)>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이용).  
주 :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월비 기준.



- (시사점)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진출 전략과 함께 새로운 수출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에 부딪힌 수출 시장에서 생존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수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2016년 하반기에도 신흥국 수요 둔화 지속, 주요국 정치 불안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불리한 대외 여건이 지속되면서 견조한 수출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
- 새로운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는 한편, 외형적 성장에 집중하기 보다는 부가가치 창출, 생산성 향상, 신성장산업 육성 등 수출 잠재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둘째,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 시장에 대해 정밀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적 공략이 요구된다.

-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나홀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소매 판매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미국의 수입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소비자 소비패턴 및 선호도 파악, 트렌드 변화, 산업 구조변화 분석 등 정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세계 경제 회복의 중심축인 미국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

셋째, 중국 시장에서는 소비재 시장 확대에 대응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사드 배치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중국은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소비재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소득 및 소비성향에 맞는 제품 포지셔닝, 가격 전략 등 맞춤형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 부문과의 연계 등 차별화 전략을 확보해야 함
- 동시에 국내 사드 배치가 양국 간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들이 중국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유지하고 정부간 충분한 조율과 타협을 시도할 필요

넷째, 유럽 시장에서는 영국과의 빠른 무역 협정 체결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들의 탈영국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 영국과의 빠른 무역 협정 체결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영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들의 탈영국화 및 수입선 변경 가능성을 주시
- 탈영국화를 꾀하는 글로벌 기업과 우리 유망 수출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매칭하여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 **HRI**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